

전남 동부권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내달 개관

1900년대 유물·영상 전시 청소년 역사교육 현장 기대

호남지역 기독교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 역사박물관(사진)이 순천에 문을 연다.

순천시는 “추수감사절 기간인 11월 20일에 매곡동에서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3년 사업검토에 나선 후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아 2009년에 착공, 지난 3월에 박물관을 완공했다.

박물관은 지하 1층(전시관)·지상 1층으로 부지 1447㎡에 연면적 866㎡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에는 전시관과 사무실, 미니 체펠(에배당)이 들어선다.

박물관에는 당시 선교사들이 탔던 포드자동차 T모형을 비롯해 국내외의 관계자 고증을 거쳐 수집한



1900년대 기독교 관련 유물·영상과 당시 진귀한 생활필수품 등 774점이 전시된다.

이번 박물관 개관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펼쳤던 100년 간의 선교활동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물관이 위치한 매산동 주변의 매산중·고등학교, 순천의료원, 중앙교회, 순천구 선교사가 사용했던

코의 가옥, 프레스턴 가옥, 크레인 가옥, 조지왓츠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유서깊은 선교 역사현장인 매산 동과 인근 향동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종교체험 코스를 개발해 문화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들에게는 근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보성 장좌지구 침수피해 걱정마세요”

6000t 규모 빗물펌프장 준공 시간당 2만3000t 배수능력도

보성군의 상습 침수피해 지역이었던 벌교읍 장좌지구의 재해방지를 위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보성군은 지난 22일 벌교읍 장좌 빗물펌프장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장좌지구는 인근 칠동천의 홍수

위보다 땅 높이가 낮아 이 일대 360가구 주민들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사업비 지원을 요구해 최근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6월말 본 공사에 들

어가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사업을 추진했다.

장좌지구 빗물 펌프장은 6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와 시간당 2만3000t의 배수능력을 갖춘 185kW 펌프 3대를 설치해 침수방지에 나선다.

또 주변 남은 공간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설치해 과거 단순한 펌프장

기능에 더해 쉼터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정중해 군수는 “예산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에 공을 들여 사업기항을 1년 앞당겨 착공 1년 4개월 만에 완공했다”며 “주차장과 소공원 등으로 주민 편의시설로도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kim0686@

보성교육청 ‘학부모 동화이야기 대회’ 호평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명선옥)은 최근 보성 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동화이야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학부모 동화이야기 대회’는 학부모의 숨어있는 재능발견과 학교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대표로 참가한 15명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옛이야기와 창작동화,

그림동화 등 미리 제출한 원고를 완벽하게 암기해 다양한 목소리 흥내와 몸짓을 곁들여 이야기를 들려줘 호평을 받았다.

명선옥 교육장은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신장되고,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가정에서부터 책을 함께 읽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kyb@

조충훈 순천시장, 佛 총리에 정원박람회 협조 요청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인 순천시 조충훈 시장이 지난 23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해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를 만났다.

이번 방문은 조 시장이 지난 2005년 민선 3기 시장 재임 당시 우호 교류를 추진했던 프랑스 낭트시 시장이 있던 현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조 시장은 “내년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 4월 20일 순천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을 위해 프랑스 낭트시와 세이셀 공화국을 방문했다.

아이로 총리는 “내년 정원 박람회

장에 프랑스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정원 박람회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개막식 행사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방문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방문단은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원박람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호교류 추진으로 생태수도 순천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을 위해 프랑스 낭트시와 세이셀 공화국을 방문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여주시 보건소 한옥형태 새청사 준공 이전

여주시 보건소가 현대화된 장비와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춘 새 건물로 이전해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여주시 학동 213번지에 자리 잡은 새 보건소 건물은 건축규모 4101.83㎡(1240평)에 2동,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27억7000만원과 도비 6억9200만원, 시비 40억7000만원 등 총 74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월 착공했다.

한옥형태로 지어진 새 보건소는 시

청사, 교통센터, 박람회 상황실 등 인근 공공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붕은 순도 99%의 친환경 동기와와를 사용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라 색상이 변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썩지 않으며 태양열과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에 내구성이 강하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보

건소 청사는 3여(廳) 통합 전 7만여명 인구가 사용한 건물로 시설 노후와 좁은 공간, 주차난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새로이 보건소가 들어서므로써 이 같은 불편들이 해소되고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새 보건소에서 100여m거리의 옛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고흥군,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콜택시 전달

고흥군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콜택시를 도입했다.

고흥군은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해 지난 23일 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송병국)에 전달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시트가 장착돼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군 관내 1·2급 장

애인 중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전예약(061-833-5882)을 하면 이용가능하고, 일요일은 휴무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1500원, 추가 164m당 80원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50% 수준이다.

/동부취재본부=주지숙기자 gjju@

전 북

“남원 흥부제 열립니다”

27~28일 사랑의 광장서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열리는 남원 흥부제가 27~28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 등에서 열린다.

20회를 맞는 흥부제는 격식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관광객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로 준비했다.

축제는 흥부전의 배경지인 인월·아영면에서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 풍년 기원 농악놀이 등 터울림으로 시작된다.

추천문화예술회에서는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초·중·고 등생을 대상으로 흥부·놀부 상징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이 열린다.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 주변에는 흥부·놀부 주제에 맞는 흥부 지게, 놀부 마누라 밭주걱, 화초장, 전통복장 포토존 등이 설치되는 등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사랑의 광장에서 광한루원까지 이어지는 신관 사또 부임행차, 남원 시립국악단의 동편제 남원국악을 중심으로 한 퓨전국악,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이환주 시장은 “올해 흥부제는 의식행사를 대폭 줄이고 참여행사를 늘려 시민·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새만금 특별법 개정 탄력받나

여야 찬성 한목소리...전담기구·특별회계 등 절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여야 모두 새만금 특별법 개정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거나 각종 소송으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나누어지는데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전북도와 민주당 합당은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공감하지만, 현행 ‘새만금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난색을 보였다.

23일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가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개발청 신설을 시사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새만금 사업의 (집행) 6개 부처에 흩어져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며 “기획단 이던, 개발청이던 6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새만금은 대(對) 중국 전초기지이며 식량부족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힘을 합쳐 성공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예산이 투입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거듭했다.

전북도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파악된 만큼 이달 말을 전후해 의원발의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성기기자 nogusu@

단 신

오늘 군산 ‘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군산시와 군산지역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역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25일 군산 국가산업단지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지방산업단지 안

에 입주한 기업 30여 곳이 참가해 생산직과 사무직 등 2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인력난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성기기자 nogusu@

정읍시 80억 투입 시립도서관 31일 기공

정읍시는 오는 31일 내장상동 옛 정수장 터에서 시립도서관 기공식을 한다.

시립도서관은 부지 3500㎡에 지상 4층 규모로 짓는다. 1층은 강당과 어린이실, 2층은 종합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이

들어간다. 3층에는 열람실과 휴게실, 4층에는 서재와 문화교실 등을 마련한다.

시립도서관은 80억 원(국비 32억 원 포함)을 들여 201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성기기자 parkks@

순창군 장류축제 참여 나눔 협약식

순창군은 24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제7회 순창 장류축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협약식’을 가졌다.

군은 다음달 열리는 ‘제7회 순창 장류축제’를 모두 함께 나누는 훈훈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나눔의 기부형태로 조성된 모금액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금 형태로는 2012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2012인분 떡볶이 만들기, 107m 메주 만들기, 고추장요리경연대회 등 다중참여 프로그램과 청정원·사조이벤트관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행사장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함을 설치해 성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부안 변산면 운산천살리기 추진위 정화활동

부안 변산면 운산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운산천 살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각 마을이장과 부녀회장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구간별로 분담해 정화활동을 펼

쳤다.

운산천은 운산마을 상류에서 중산, 지서2구, 모장, 사암, 송포 마을까지 총 3km에 이른다.

추진위는 또 매월 1회 이상 정화활동을 추진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들들 말아 소 먹이로...

수확이 끝난 정읍시 이평면 논에서 트랙터로 볏짚을 모아 소먹이용 곤포(楢包) 사일리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곤포는 햇볕에 3~4일 말려 발효액을 뿌린 볏짚을 지름 1m, 무게 500kg가량으로 만들어 흰 비닐을 둘러싼 덩어리다.

/연합뉴스

남원시 일부 아파트 내달부터 도시가스 공급

남원시 일부 지역에 천연 도시가스(LNG)가 11월 처음으로 공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32.63km의 주 배관 공사를 착수해 지난해 완료했다. 또 최근에는 시내 공급배관 시설공사(18.56km)가 완료

돼 연간 도시가스 1만5600t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연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시내 공동주택은 한산, 비안, 메카센터빌 등 8개 아파트 단지(총 1917가구)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군민의 장’ 김봉호·윤상윤씨 선정

순창군은 최근 ‘순창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장에 김봉호씨, 체육장에 윤상윤(순창북중 교사)씨를 선정했다.

김봉호(76)씨는 순창군 공무원을 장년퇴임하고 금과들소리 보존회장과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윤상윤 교사는 1991년 순창북중 부임 이후 이듬해 역도 불모지인 순창에 역도부를 창단해 각종 국제·국내



김봉호씨 윤상윤씨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순창을 널리 알린 공로가 인정됐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